

문화

■ 광주일보·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문학 제4탄- 홍성담 '저항과 예술'

“저항으로 시작된 예술가의 창조행위 기존질서 해체하고 새로운 세상 열죠”



“예술가의 창조행위는 ‘저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극한의 자기성찰의 고통을 수반한 저항으로 이뤄낸 기존 질서의 거부와 해체는 또한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고 결국, 현대미술의 부조리한 것들을 정화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 “예술가는 자기를 억압하는 당대의 ‘가위눌린 질서’를 거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며 자유로운 상상력, 가위눌린 질서를 해체한 다음에 도달하는 혼돈(카오스)은 창조적 예감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홍씨는 “뉴욕 뒷골목의 ‘지렁이’가 되길 자임했던 앤디 워홀은 뉴욕의 대량소비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탐욕이 토해내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실재없이 꿈틀거리며 인간이 내다 버린 오수(汚水)를 정화해 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예술가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질서를 거부한다”고 전제한 홍씨는 예술가의 임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입장을 밝혔다. 홍씨는 “현대는 자신의 예술적 모든 행

이번 강좌는 광주의 아픔을 ‘5월 관화’에 새겨 세상에 알렸던 홍씨가 광주에서 30년 만에 연 개인전 ‘흰 빛 검은 물’과 함께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홍씨는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렸던 마네의 작품 ‘풀밭위의 점심’과 ‘올랭피아’ 이 야기로 강연을 풀어내었다. 홍씨는 “예술가에게 ‘저항’이라는 명제는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진리”라며 “당대 사회의 도덕성을 신랄하게 공격한 이 작품들이 미술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홍성담씨가 지난 14일 열린 ‘현대미술과 인문학’ 네번째 강좌에서 저항과 예술, 현대미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의 아픔 ‘5월 관화’에 새겨 세상에 알려 강의 후 ‘흰 빛 검은 물’전 기념 작가 사인회

두 이 ‘창색시대’가 만들어준 자기성찰의 미학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으며 ‘케르니카의 화살’이 주는 감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창조적 예감으로 가득한 예술가의 영혼을 소

위를 무기화하여 선전선동하는 예술가와 캔버스 안에서의 무한자유를 얻기 위해 날마다 고통스러운 혼돈의 세계를 꿈꾸는 예술가 두 유형이 있지만 결국은 ‘창조적 예감’의 세상을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현대미술을 보면 시장과 화해를 꿈꾸다 종속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예술가의 가너린 영혼이 자신을 고통 속에 끊임없이 내던지면서 견져 올리는 세상, 창조적 예감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연을 맺었다.

이번 강의 후에는 ‘흰 빛 검은 물’전을 기념하는 작가 사인회가 있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홍씨와 대화를 함께하며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현대미술과 인문학’ 다섯 번째 강좌는 오는 6월18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외대 홍가이(언어철학 교수)씨를 강사로 초대한다. 홍씨는 “현대 문명의 구성원리와 예술의 역할’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538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립중앙박물관 ‘올해의 젊은 큐레이터상’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변길현(44)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지난 15일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처음 제정한 ‘올해의 젊은 큐레이터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젊은 큐레이터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한국박물관 개관 101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큐레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미술관 부문에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를, 박물관 부문에 홍경아 숙명여대 박물관 학예연구사를 각각 선정했다.

변 학예연구사는 2006년 ‘즐거움 미술여행’전 등을 기획, 기존보다 5배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했으며 ‘봄날은 간다’ 등 기존의 일방적인 전시에서 탈피해 아이들에게부터 어른들까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생생한 전시를 선보였다.

‘즐거움 미술여행’전 등 기획 지역 전시회 패러다임 바뀌 관람객 5배 이상 유치 성과

변길현 학예연구사는 국립미술관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 전시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시회를 진취적으로 개최한 점이, 홍경아 학예연구사는 소외지역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굿모닝! 콘스트할레 광주

지난 2000년 독일의 30대 문화운동가 톨 뷔세만과 크리스토프 프랑크는 베를린의 미테(Mitte)지구 ‘접수’해 일약 유명인사로 떠올랐다. 옛 동베를린 중심지였던 이곳은 통일 뒤 폭음과 낭만,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변신중이었다. 두 사람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한복판에 복합문화운동을 내세운 ‘플래툰 콘스트할레(플래툰)’라는 사무실을 냈다.

이들의 베를린 ‘입성’이 화제가 된 건 다름 아닌 사무실 건물이었다. 검은색 선택컨테이너 4개를 조합해 만든 칙칙한 외양은 보통 후 지어진 모던한 건물과 콘크리트 양식의 옛 동독 건축물 ‘플라텐바우(Plattenbau)’가 어우러진 도시의 경관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창고를 연상케 하는 사무실과 군대의 소대를 뜻하는 ‘플래툰(Platoon)’이라는 이름은 베를린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선택컨테이너의 창고나 사무실쯤으로 쓰일 것 같은 건물 안에선 날마다 공연과 전시회, 퍼포먼스 등 한바탕 난장이 펼쳐졌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베를린 시내를 들쭉이게 한 주인공은 너무 튀거나 잠잠지 못하다는 이유로 주류문화에서 대접받지 못한, 이른바 ‘서브컬처’(하위문화)였다. 기존의 갤러리나 공연장,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특 튀는 문화는 순식간에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플래툰은 동지들 틈 지 일 년 만에 베를린에서 가장 ‘잘 팔리는’ 곳으로 급부상했다.

뷔세만과 프랑크가 플래툰을 추격 든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하위문화와의 만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기존의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는 미디어 아트, 그래픽 디자인,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등의 하위문화를 좀처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컨테이너 박스는 기존 건축물의 고정된 공간이 답안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퍼닐 수 있는 최적의 창구였다. 무엇보다 콘스트할레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에 약 4000여 명의 예술가, 커뮤니티와 연결된 네트워크다. 이 같은 인적 교류를 매개로 각국의 역동적인 문화들을 콘스트할레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독일산(産)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콘스트할레가 광주에 닿을 내렸다. 베를린, 서울 논현동(2009년 4월 개관)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지난 12일 옛 전남도청 앞에 수출용 컨테이너박스 29개를 쌓아 올린 ‘콘스트할레 광주’(한글명·아시아문화마루)를 설치하고 일반에 첫선을 보였다. 추진단은 정식개관(7월30일)에 앞서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13일까지 프레임 기념으로 특별기획전 ‘오월의 꽃’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콘스트할레 광주는 오는 2014년 개관하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시민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쇼 케이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택컨테이너박스를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삼은 콘스트할레 광주의 신선한 시도가 지역의 문화지평을 끌어올리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나아가 광주의 ‘5월 정신’과 예술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드림 컨테이너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제 55회 호남예술제 성악 입상자

<p>〈심사위원〉 김용진(전주대 교수) 이한나(조선대 교수) 최덕식(광주대 교수) 이은철(전남과학대 교수) 김철웅(목포대 교수)</p>	<p>▲ 동상 9 나가현(나주2) 14 강선주(영산포여2) 18 이상근(지산3) 20 주윤지(순천풍덕3) 22 오서진(일동3) 32 임민정(순천신흥3)</p>	<p>54 문현영(정광3) ▲ 은상 20 윤경선(광주예술1) 30 구화은(광주예술2) 45 김자은(광주여자3) 48 유슬기(광주예술3)</p>
<p>◇ 중등부 ▲ 최고상 3 임하은(첨단2) ▲ 금상 1 이하림(동신여자1) 25 주현형(대자3) ▲ 은상 11 권성윤(유덕2) 27 장예린(일신3) 30 김남효(동아여3)</p>	<p>◇ 고등부 ▲ 최고상 7 김효진(전주예술2) 50 김경광(광주예술3) ▲ 금상 12 최진영(광주예술1) 18 이 썸(광주예술2) 29 박지영(광주예술2) 37 김예나(광주예술3) 53 서인선(광주예술3)</p>	<p>※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24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영 / 화 / 안 / 내

메가박스

M관	하녀 (184)	최고급권
2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4)	
3관	하녀 (184)	
4관	로빈 후드 (154)	
5관	하녀 (184)	
6관	시 (154)	
7관	대한민국1%(124)/베스트셀러 (154)	
8관	로빈 후드 (154)	
9관	아이언맨2 (124)	

• 호남주치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료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덕약국사거리 ♥에메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로빈 후드 (154)
2관	대한민국1%(124)/베스트셀러 (154)
3관	로빈 후드 (154)
4관	로빈 후드 (154)
5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4)
6관	하녀 (184)/ 토이스토리, 토이 (24)
7관	아이언맨2 (124)
8관	시 (154)
9관	하녀 (184)
10관	아이언맨2 (124)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형원길 밤방~(1번 or 2번)→0번

씨너스전대

1관	아이언맨2 (124)/ 하녀 (184)
2관	브라더스 (154)/ 로빈 후드 (154)
3관	로빈 후드 (154)
4관	시 (154)
5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4)
6관	베스트셀러 (154)
7관	아이언맨2 (124)
8관	하녀 (184)

씨너스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틀종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상해 • www.cinusa.co.kr/1544-0070 북구보문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로빈 후드 (154)
2관	로빈 후드 (154)
3관	아이언맨2 (124)
4관	하녀 (184)
5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4)
6관	대한민국1%(12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원권 구매 고객에 한함)



세운기흥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 종정로 371 ♥ARS 전화예매 ☎ 227-1960